

개념의 역사에서 은유의 역사로?

박근갑 |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은유는 개념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역사를 지닌다. 왜냐하면 한 은유의 역사적 변화는 그 자체로 역사과정의 의미지평과 관찰방식의 메타동력학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는데, 그 안에서 개념들이 변이를 겪기 때문이다.” 독일 철학자 한스 블루멘베르크(Hans Blumenberg)가 1960년 「은유학의 범례들」에 실었던 이 말은¹⁾ 오늘날 여러 의미론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전망으로 되살아났다. 은유의 역사성을 묻는 주제는 최근에 이르러 국제 개념사 학술회의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²⁾ 은유사(Metapherngeschichte)의 방법이 견고한 개념사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경향성은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역사서술에 등장하는 은유

1) Hans Blumenberg, 1960, "Paradigmen zu einer Metaphorologie," *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 Vol.6, pp.7~142. 이 논문은 1998년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다시 나왔다 (*Paradigmen zu einer Metaphorologi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98). 이 글의 인용문은 단행본의 내용에 따른다(인용문 p.13).

2) <http://www.hpscg.org>(The 13th Annu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Concepts: Concepts, Metaphors and Discourses); <http://www.concepta-net.org/links>(Frank Beck Lassen, "Can conceptual history be incorporated into metaphorology—or is it the other way round? Reinhart Koselleck, Hans Blumenberg and recent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metaphors").

가 다양한 세계관을 축적하고 있는 의미표상으로서 개념에 필적하는 위상에 다가가는 현상은 두드러져 보인다. 은유학이 무엇보다도 개념의 형성에 선행하는 원초적 공간에 주목하면서 개념사의 명제들에 도전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개념사 방법의 초석을 다진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d Koselleck)은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을 마치도 예견이나 했듯 여러 글에서 은유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를테면 그는 이미 1972년 독일어 개념사사전의 편찬 ‘지침’을 알리는 글에서 ‘감각적이며 상황에 얽힌 콘텍스트가 개념에 정치적, 사회적 추진력을 불어 넣는다’는 근거로 ‘은유법(Metaphorik)’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³⁾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는 그 기념비적인 사전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한스 블루멘베르크가 제시했던 바대로 우리 개념들의 은유법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비난받을 수도 있겠다. 이 모든 요구가 앞으로 계속되는 작업을 고대하는데, 우리 사전이 그렇게 완수되려면 아마도 너무나 큰 부담을 졌을 것이다.”⁴⁾ 은유학의 방법은 어떠한 점에서 개념사 연구를 압박하는가? 은유의 역사는 의미론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개념사와 나란히 갈 수 있을까? 개념사는 은유학으로부터 어떠한 방법론의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가? 먼저 블루멘베르크가 제시한 은유법의 윤곽을 살펴본 후 이러한 질문들에 다가가 보자.

블루멘베르크가 은유의 두 가지 주요 변형을 가르면서 ‘이해지평의 현상학’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신화에서 로고스로 향하는 길에서” 남아 있는 ‘잔여요소(Restbestände)’이다. 이러한 성격의 은유는 “개념형성의 앞마당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임시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아직도 개념이 걸여된 영역에서 잠정적으로 개념형성을 돕는다.

3) R. Koselleck, 1972, “Richtlinien für das Lexikon politisch-sozialer Begriffe der Neuzeit,” *Archiv für Begriffsgeschichte* Vol.5.

4) R. Koselleck, 1992, “Vorwort,” O. Brunner, W. Conze, R. Koselleck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Vol.7, Stuttgart, p.VIII.

그리고 그것이 사유의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명료하게 구성되고 표현될 언어를 어렵곳이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은 탐색적 장식에 그친다.⁵⁾ 블루멘베르크는 그러한 치장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며 개념에 앞서 상징적으로 구상되는 언어 형식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대체불가능하고 환원될 수 없으며 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는 은유의 성격에도 주목한다. 그것은 철학적 사유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그 유형이 곧 ‘근본요소(Grundbestände)’이다. 이러한 요소를 지닌 은유는 독립적인 의미 이외에 또 다른 이해의 지평으로 내몰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식의 범주를 능가한다. 따라서 그것은 철학적 사유의 ‘잔재’가 아니라 ‘근본’을 구성한다.⁶⁾ 블루멘베르크는 보다 넓은 전망에서 그것을 ‘절대적 은유(absolute Metaphor)’라고 불렀다. 그 ‘절대적’ 성격은 그의 표현대로 원리적으로 대답하기 든 질문에 해답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한 질문의 중요성은 근본적으로 사유과정에서 치위질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은 역사의 행위주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현존재 그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은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생한 경험세계의 토대를 이루는 구조와 접촉하도록 이끌며, 또한 그 구조를 의미심장한 전체성과 결합시킴으로써 경험세계를 초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역사서술의 대상이” 된다.⁷⁾

이렇게 설정한 은유가 증언가치(Zeugniswert)를 지니고 있다는 점, 바로 여기에 블루멘베르크 은유학의 근본적 관심이 놓여 있다. 이 지점에서 은유는 코젤렉의 기본개념과 친화관계에 선다. 즉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또한 지난간 의미지평을 증언하는 표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은유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5) H. Blumenberg, *Paradigmen*, pp.9 f.

6) Rüdiger Zill, 2002, “〈Substrukturen des Denkens〉. Grenzen und Perspektiven einer Metapherngeschichte nach Blumenberg,” Hans Erich Bödeker ed., *Begriffsgeschichte, Diskursgeschichte, Metapherngeschichte*, Göttingen; 최성환, 2008, 「블루멘베르크(H. Blumenberg)의 은유의 해석학」, 『철학탐구』 23, pp.227~250.

7) H. Blumenberg, *Paradigmen*, pp.23 f.

로 역사적 증언으로서 하나의 '지표'이다. 그의 표현대로 “은유는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지각력에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확실성, 추정, 평가를 부여하는데, 그것들로부터 한 시대의 행위, 기대, 활동, 방관, 동경과 환멸, 관심과 무관심이 정리된다.”⁸⁾ 이러한 지표들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은유들에 기재된다. 그 지표들은 대단히 복잡한 여러 의미론 관계들의 회화적 축적이다. 역사서술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은유들은 다양한 세계관을 축적하고 있는 의미의 표상이다. 그 다양한 세계관은 역사적 대리인이나 지식인들이 확립했거나 조작한 것인데, 그들은 현실세계를 묘사하거나 그 근거에서 행동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보완하기 위해 상징을 이용한다. 이런 점에서 은유의 지평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의미의 시간과 환경이 꼴을 갖추는 동안 형성된다. 이렇게 은유가 역사세계를 해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개념과 접합한다.

이처럼 절대적 '근본요소'가 추적될 만한 역사를 지닌다 할지라도, 은유는 개념과 어긋나는 이해의 지평으로 향한다. 은유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의미연쇄의 침전물이 순전히 우연하게 쌓인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차원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우리가 점차 당면한 경험의 영역에서 더 멀리 벗어나 스스로 세계의 전체성, 즉, 우리 세속 존재의 궁극적 의미에 질문을 던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은유에 기대게 될 것이다. 은유에 고유한 개념 이전의 차원을 분석하면, 우리가 상징을 통해 접속하는 원초적 형태를 보다 새로운 형태의 판단력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재구성하는 과제가 곧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이다.⁹⁾ 그의 표현대로 '절대적' 은유는 그 자체로 이해의 지평과 관찰방식을 근원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개념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

인 역사성을 지닌다. 보다 확실하며 명료한 개념은 바로 그 가운데서 생성하고 변화하는데, “이러한 연루관계를 통하여 은유학이 개념사와 더불어 맺는 관계는 봉사관계로 규정된다. 은유학은 사유의 하부구조, 즉 토대 혹은 체계적인 결정화(systematische Kristallisation)를 가능케 하는 배양액에 다가가려고 한다. 그러나 은유학은 또한 정신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스스로 자신에게 비친 영상에 앞서 있으며, 용감하게 스스로 예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구상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¹⁰⁾

블루멘베르크는 인간이 현실세계와 더불어 맺는 관계가 간접적이며 뒤쳐져 있고 선택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은유적'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은유는 개념과는 달리 지시하는 기능보다는 실천하는 기능을 지닌다. 은유는 하나의 대상을 대표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 부재의 빈 공간, 표현할 수 없는 빈 공간으로 투신하여 대상의 대리인으로 봉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을 상징적으로 통제하도록 허락한다. 즉, “은유의 진리는 아주 넓게 이해한다면 실용적이다. 그 내용은 방향설정의 발판(Anhalt von Orientierung)으로서 행위를 규정한다. 은유는 하나의 세계에 구조를 제공하며, 결코 경험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실재의 전체성을 표현한다.”¹¹⁾ 이러한 점에서 은유학은 비개념성의 이론이다. 그 방법은 더 이상 하나의 역사적 현상학, 즉 대상이 현현하는 과학이 아니라, 객관적일 수 없는 사고의 상관관계들에 깔려 있는 비자연적 성격을 보여 주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유는 모든 개념형성의 밑바탕에 남아 있는 비합리성을 가리키면서 내부 언어적 지침들로 기능한다. 그것은 그림으로써 개념들이 의미론적 내용들을 안정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즉, 은유는 주어진 이해의 지평에 내재하는 균열의 지점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은유의 특수한 과제에 주목하면, 생활세계가 개념의 생성과 변화

8) Ibid., p.25.

9) Elías José Palti, 2010, “From Ideas to Concepts to Metaphors: The German Tradition of Intellectual History and the Complex Fabric of Language,” *History and Theory* 49 (May 2010), pp.204 ff.

10) H. Blumenberg, *Paradigmen*, p.13.

11) Ibid, p.25.

를 넘어 재구성되는 계기와 지금 확실해 보이는 것들의 근거가 마침내 혼란 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유의 가치는 개념과는 달리 그것이 표현하는 지점에 있지 않다. 은유는 현실세계를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개념 대상의 부재공간으로 밀고 들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호이다. 이런 방식으로 은유는 원초적인 현실세계의 우연성과 마주칠 때 생기는 불안에 통로를 연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기본개념에 내재한 시간성의 기원을 묻는 코젤렉의 관점과 마주선다.¹²⁾

코젤렉의 개념사는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개념의 등장으로 겪게 되는 의미론의 변화에만 기울지 않는다. 그 변화의 과정이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변동의 지표로 인지될 때 역사서술의 의미를 지닌다. 코젤렉이 재구성하는 ‘운동개념’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언어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징적 실재에 내재한 질서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개념변화의 기원을 추적하는 일이 역사서술의 중심을 이룬다. 이를 위해 코젤렉은 두 가지 인식범주, 즉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설정한다. 이 두 가지 범주는 추론의 은유적 단계처럼 하나의 ‘예비과정’이며 형식적 부문일 따름이다. 코젤렉의 설명대로 경험된 것과 그때마다의 기대가 이 범주들에서 그대로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 형식적 설정은 변화의 조건들을 가능하고 규명하는 목적에 따른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 자체를 규정하는 일이 아니며, 다만 역사의 가능성을 세우도록 도울 따름이다. 즉, 모든 역사는 행동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경험과 기대를 통해 구성되지만,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나간, 또는 앞으로 다가올 구체적인 역사가 규명되는 것은 아니다.¹³⁾

코젤렉은 이러한 ‘예비과정’을 거쳐 ‘역사적 운동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의미론에 이른다. 이 명제는 이른바 ‘말안장의 시대’에 경험과 기대 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형

성되는 시간적 계기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기대들이 과거 경험들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변화된 시대가 ‘근대’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코젤렉의 설명에 따르면, 개념들이 점점 추상화되어 지나간 경험을 불러오기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미리 각인하는 이데올로기로 고양되는 과정에서, 이 양자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이때 개념들은 시대적 변화를 신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끌게 된다. 그 줄기에서 개념사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한다.¹⁴⁾

이러한 시간성의 계기는 개념의 동학을 해명하는 열쇠로 작용한다. 그러나 은유학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분석은 상응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지표/요소의 명제는 기술혁신이나 대혁명 등의 거시변혁이 선행하는 일련의 개념 변화 없이는 스스로 가능할 수 없다는 가정을 암시한다. 따라서 모든 행위주체는 주어진 개념적 테두리를 지니며, 그 안에서 스스로 표현될 따름이다. 그렇다면 개념은 근거 토대의 우연성 탓에 결코 완전히 정의될 수 없다. 블루멘베르크의 설명처럼 그 토대는 자체 내에 개념형성의 논리적 완결성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잔여를 내포한다. 이는 곧 이해지평의 변화가 곧바로 그 안에서 생산되는 의미의 전치(轉置)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념 형성과정의 우연성은 역사가 스스로 발전의 원리를 지닌다는 목적론적 가정과 어긋난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 밖에 위치하면서 결국 역사의 영역 안으로 시간성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계획된 행위자에 의지하는 방법이 남게 될 뿐이다.¹⁵⁾ 코젤렉의 설명처럼 오직 이 명제가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가르는 틈을 설명할 수 있다. “역사에서는 항상 주어진 조건들에 포함되는 것보다 많거나 적은 일들이 일어난다. 인간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러한 더 많음과 더 적음을 결정한다.” 요컨대 주체의 개입이 없다면, 진정한 역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칸트의 언명처럼, 역사가 완전히 주체의 처분대로 움직인다면, 예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12) Palti, "From Ideas," pp.207 f.

13) R. Koselleck, 1995, *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ichtlicher Zeiten*, Frankfurt am Main, p.351.

14) R. Koselleck, 1972, "Einleitung," O. Brunner, W. Conze, R. Koselleck eds.,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Vol.1, Stuttgart, pp.XIII~XXVII.

15) Palti, "From Ideas," pp.199 ff.

이다.¹⁶⁾

은유학은 이렇듯 시간성과 우연성의 계기를 병렬적으로 대치시키는 가운데 개념사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 방법은 그러면서 의미론의 동학을 확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개념사와 사회사의 결합으로 넓혀진 이해의 지평을 그 무엇이 대신할 수 있을까? 코젤렉은 근대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현대적 개념들의 의미가 포함된다. 이를테면 개념의 ‘시간화’, ‘민주화’, ‘정치화’, ‘이념화’ 등이 그것이다. 은유법의 길에서 그러한 동학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다소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은유학은 아직도 ‘예비단계’에 머물고 있다. 블루멘베르크의 설명대로 개념이란 단단하고 분명하며 보다 선명히 규정되어 주어진 시대에 저항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은유의 기초 자산은 유동적이며 원초적 공간에 머물고 있다. 은유의 추론 또한 가능한 결과를 전망하는 기대와 그 실현을 보고자 하는 행위의 열망으로 향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대와 열망은 직접적이거나 쉽게 수용되는 방식으로 탐구될 수 없는 대상이다. 역사적 행위 주체가 그러한 문제점을 명백하게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블루멘베르크는 다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고의 저 밑바닥에 숨은 층위 가운데 항상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 있다는 징후들을 철학의 언어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층위는 체계들 가운데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조율하면서 색채를 띠며, 지금 구성되면서 활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¹⁷⁾ 이 줄기에서 은유는 그의 표현대로 개념과 더불어 봉사관계를 맺는다. 즉, 은유는 미래 과업으로 향하는 전망을 창조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천을 완수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은유학과 개념사가 공생관계를 모색해야 할 이론과 방법론의 지평이 열린다.

16) R. Koselleck, *Zukunft*, pp.260~277(인용문 p.277).

17) H. Blumenberg, *Paradigmen*, p.15.